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인 공영일
주간 김진학
편집장 배종근
인쇄인 김준배

서울캠퍼스(우 :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961)0095, (963)5849
FAX(962) 7718
수원캠퍼스(우 : 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1
☎(741)5701(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0331)281-6378

제1064호 〈주간〉 1995년 3월 20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 1964. 1. 등록번호 다-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전문법학대학원 설립 추진

"사법개혁에 교육이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분야별 특성화된 전문 법조인 양성 목표

법과대학은 학부과정을 유지하되 분야별로 특성화된 3년제 전문법과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과대학 개편안을 지난 3월 15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의 법과대학체제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학부 4년 동안은 기초법 및 교양과정 위주로 교과과정이 바뀌고, 3년제 전문법과대학원을 따로 설치해 여기서 분야별로 특성화된 법학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법과대학이 설립하기로 한 전문법과대학원에서는 국제통상분야, 국제해상보험법, 기업법, 지역경제공동체법, 지적소유권법, 조세법, 노동법, 환경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등 모두가 10가지의 특성화된 분야를 가르친다. 교육부의 인가가 나는대로 신설되는 전문법과대학원은 실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한 학기동안의 배울 분량을 1개월 단위로 집중 강의하고 나머지 기간은 실습 및 연수기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외국교수 및 전문변호사의 초빙강의와 외국연수제도의 실시도 계획하고 있다. 윤명선 법대학장은 "최근 일고 있는 사법개혁에 교육이 앞장서야겠다는 취지에서 법과대학 개편안을 내놓았다"며 "다른 학교의 개편안과는 달리 법학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법과대학에 분야별 특성화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학원장 명예의학박사 수여

조영석 학원장은 지난 14일 경희의료원의 양방협진체계를 구축 동서의학 협력을 통한 제3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자매교인 필리핀 산토스대학으로 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수원, 규찰대원모집

수원캠퍼스 사무처는 오는 23일까지 재학중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규찰대원을 모집한다.

신청은 사무처에 비치된 규찰대 지원신청서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1통을 총무과에 제출하면 되는데 규찰대 근무시간은 방학과 휴일을 제외한 격일제 근무이며 당일 21시부터 다음날 새벽1시까지이다.

한편 규찰대에 대한 보수는 시간당 5천원이고 장비와 간식은 별도로 지급한다.

핸드볼부 패권 차지

우리학교 핸드볼부가 제18회 전국대학핸드볼 연맹전에서 남자부 패권을 차지했다.

우리학교는 17일 성남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결승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체대를 27대 26, 1점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이날 경기에서 연장 후반에서 2골을 연속 작렬시키는 등 총 17골을 넣은 윤경선선수는 대회 MVP로 선정됐다.

우리학교는 전반을 13대 10으로 앞섰으나 후반들어 한체대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동점과 역점을 주고 받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우리역사 바로세우기' 총학생회 산하 통일준비위원회는 15일부터 23일까지 잘살기탑 앞에서 '이승만과 나라망치기 그리고 우리의 역사 바로세우기'기획전시회를 개최했다. 〈최복영 기자〉

국교위, 자매교 학점교류 개선

교환학생에게 실질적 도움기대

우리학교 국제교류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자매교와의 학점교류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점교류 학생들은 자매교와 이수학점 차이가 나고 개설과목이 불일치하여 성적처리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이에 국교위 한상연 사무국장은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학점교류 제도의 좋은 취지가 퇴색했다"고 밝히고 이에 제도개선을 위해 교환학생의 학점을 담당교수가 학교장 및 학장과 협의하여 인정하고, 일부 자매교처럼 성적을 1년단위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자매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우리학교의 기본 이수학점과 비교하여 모자랄 때 이를 1백50%까지 학점을 환산 할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배정기, 서총련의장 당선

올해 운동 강령과 규약 개정 통과

서울지역 총학생연합회(서총련) '제14회 정기 대의원대회'가 지난 17,18 양일간에 걸쳐 서울캠퍼스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서강대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서총련 의장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배정기(신방 4)군이 단독으로 입후보, 대의원 2백32명의 투표중 1백99명의 찬성으로 당선되었다.

이날 의장으로 선출된 배군은 "민족사적 전환기를 맞아 청년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고 있으며 서로가 역사발전의 주체임을 각인하자"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부의장제 폐지, 정책기획조정실 신설 등 서총련 강령과 규약을 새로이 개정하여 통과시켰으며 95년도 총노선 기조로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학우들과의 건면적 결합, 지역연대운동 활성화 등을 확정지었다.

서총련 출범식은 4월13일부터 14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장소는 미정이다.

복수전공 희망자 접수

수원캠퍼스 교무처는 95학년도 3학년 재학생중 복수전공 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 까지이며 자격은 2학년2학기 까지의 매학기 평점이 2.5이상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복수전공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경대 무역과 특강 실시

오는 22일 해외지역 전문가 초청

정경대 무역학과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정경대 401 강의실에서 각 지역의 문화와 경제적 특성에 대한 강연계획을 마련하였다.

대한무역진흥공사 소속의 해외지역 전문가들이 강연할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오는 22일 조영복(전 방콕 및 호치민 무역관장)씨와, 29일 이상형(홍콩 무역관 근무)씨가 동남아지역과 중국에 대해 각각 강연할 예정이며, 중남미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4월6일과 12일에 우세량(미주과장)씨와 강영수(카사블랑카 무역관)씨가 맡게 된다.

지구환경연, 지역주민대상 수질검사

국내대학 최초로, 지역사회 봉사 일환

우리학교 부설 지구환경연구소(소장 : 김형석교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약수물, 수도물등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대학에서 일반인에게 수질검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 연구소는 일반세균, 매농도, 암모니아성 질소, 철분, 납등의 12가지의 항목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일주일 후에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김형석교수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 봉신 차원에서 실시한다"면서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구 환경연구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계절을 맞아 실내 공기오염정도를 2학기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김말애교수 사진전

김말애(체대 무용)교수는 오는 23일까지 바탕골 미술관(대학로)에서 자신이 출연한 작품 사진전을 주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무용사진가 최영모씨와 10년간의 공동작업 끝에 기획된 것으로 무용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고 공연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총동문회 정기이사회 개최

95년도 사업계획논의

우리학교 총동문회 '95년도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 남대문소재 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는 정동성 총동문회장을 비롯 강삼재, 이현사 민자당 국회의원, 정태류 변호사, 박상동 서울시의원, 이승길 자민련 지구당위원장, 임연상 국제친선회의장, 한봉수 서초구의회의장, 차봉오 시의회의원, 김중림 홍사단 이사장, 박기서 우리학교대학원장 등이 참석 94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와 95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투병중인 김성욱군을 도옵시다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김성욱(식품가공 92)군(본보 13일자 6면보도)을 돕기위한 학생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김군의 백혈병은 입학한 92년 6월 발병되었으며 1년간 치료후 복학예정이었으나 다시 재발하여, 현재 중앙병원 제7병동 7433호에서 입원가료중이다.

현재까지 학생들이 모은 헌혈증서는 총 1백50여장에 이르고 있으나 방사선·항암제 치료를 진행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다.

지난 18일 김군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학교생활한지 6개월 밖에 안됐어요, 다시 학교로 돌아갈수 있다면 열심히 공부할래요'라고 말했다.

김군의 어머니 이경자(51)씨는 거듭 "여러학생들에게 고맙다"라며 "8개월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전한다.

수술일자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수술시에는 O형 혈액의 직접 수혈이 필요하므로 학생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 할 것이라 한다.

우리 신문사에서는 김군을 돕기위해 헌혈증서와 수술시에 직접 수혈희망자 그리고 하루 2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보태기 위한 성금을 접수하고 있다.

접수는 서울·수원 편집실(구내전화 : 0095, 수원 2056)로 하면된다.

교사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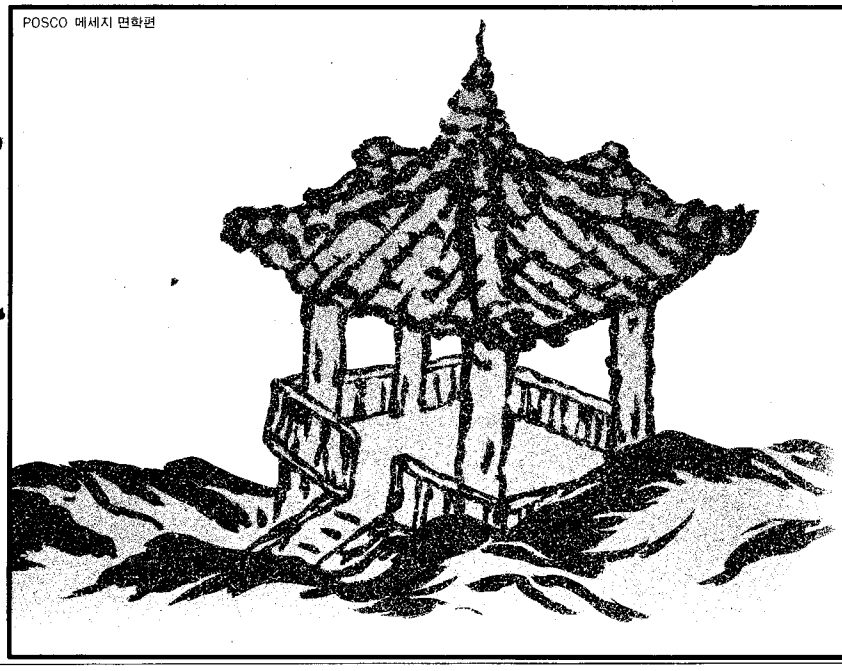
목적에 충실한 계열화를 바란다

▼공자의 말씀중에 '장점과 단점은 집집마다 있고 따뜻하고 서늘한 것은 곳곳마다 있다. 시비는 실상이 없으니 마침내는 모두 헛것이 된다'는 말이 있다. 어떠한 일을 추진했을때 그에 따른 찬·반의 입장은 비일비재한 얘기다. 그러므로 서로의 장·단점을 인정해주고 보완해 주는 것은 사람사는 도리인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에서는 대학자율화와 계열별 평가인정계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우리학교는 수원캠퍼스의 전자, 전파 계열, 경영계열에 이어 서울캠퍼스 경영, 무역, 회계등 3개학과에 대한 계열화를 검토중이다. 이 계열화문제로 학교, 교수, 학생간에 서로 민감한 반응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학생들은 학과의 유관성 및 시설미비를 이유로 계열화 운영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학교측은 연관 학문간의 유기적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잇점을 내세워 계열화를 추진중이다. 따라서 학교측 관계자 대부분은 계열화문제에 대해 찬성의 소리가 높다. 하지만 그 사안의 통보나 구체적인 사례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학생이나 교수들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추진할 경우 계획이 지지부진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쪽과 당연히 알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교수들 사이에서도 계열화에 대한 의견은 다르다. 특히 무역학과는 교과과정으로 나타나는 학문적 특성으로 보아 경영계열이 아니라는 관단에서 경영, 회계 두학과의 계열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이번 계열화에 관한 문제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계열화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방법적으로 통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이 계열화가 추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라 진정 학생과 학교를 위한 계열화이기를 바란다. 바로 이러한 목적에 충실할 때 계열화는 우리 모두의 계열화가 될것이기 때문이다.〈심지현 기자〉

POSCO 메세지 면학편



思想樓閣

교문을 나선 선배들이 남겨둔 텅빈 그 자리를
뭇뭇함으로 가득 채운 새내기들과의 만남.
계속 이어지는 향우회, 동문회, 환영회에 지쳐
늦게 들어간 전공 선택 수업시간…
강의에 열중하시던 노교수님은 불현듯
칠판에 큰 글씨로 네글자 '沙上樓閣'을 쓴 뒤
창가로 몸을 옮긴 후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셨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교수님은 칠판의 글씨를
'思想樓閣'으로 고쳐 쓴 다음 어리둥절해진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대학생활은 내일을 위해 열려 있는 공간이며
곧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 입니다.
어떤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의 문제보다
기초를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래가 아닌, 思想의 터전 위에 미래를 펼칠 때
완성된 삶은 오래도록 빛날 것입니다.

포항제철